국내 마감시황

2025. 11. 26.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美 금리 인하 기대에 상승 마감

미국 9월 PPI 예상치 부합하며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확대
바이오·원전·화학 중심으로 강세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3,960.87pt (+2.67%)	877.32pt (+2.49%)	559.37pt (+2.71%)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68.90 원 (-2.3 원)	3.2420% (-2.2bp)	6,805.50pt (+0.35%)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18,050 억	-2,730 억	+752 억
외국인	+5,239 억	+2,108 억	+2,629 억
기관	+12,274 억	+868 억	-3,965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 미국 9월 PPI가 예상치에 부합하고 9월 소매판매가 예상치를 하회하자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상승했습니다. 이에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했고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보이며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특히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2.67%, 코스닥은 2.49% 올랐습니다.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15.6조원, KOSDAQ은 7.6조원을 기록했습니다.
- 외국인은 KOSPI에서 4거래일 만에 순매도를 멈추고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이들은 KOSPI에서 제약과 IT 서비스 업종을 매수했고, 금융과 전기/전자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6거래일 연속 KOSPI를 순매수했습니다. 이들은 전기/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수했습니다.
-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12월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자 성장주 성격의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형 원자로 8기의 건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원전주가 상승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과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개선 기대에 화학주가 올랐습니다. 그 밖에 반도체, 2차전지주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중·일 갈등 완화 조짐에 레저·호텔주가 연이틀 약세를 보였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LG화학(+9.37%), 두산에너빌리티(5.71%), 삼성전자(+3.52%)가 올랐고, 롯데지주(-6.09%), GS피앤엘(-5.48%), 하나마이크론(-3.21%)이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